



<a href="http://www.cinekoreaexpo.com">www.cinekoreaexpo.com</a>	<b>보 도 자 료</b> Press Release	문의 : (주)케이엑스비전스 대표 김상욱 (010-6431-2957)
------------------------------------------------------------------	---------------------------------	-------------------------------------------

**제 목 : 올 10월 부산서 한국 최초 개최되는 영화 영상산업 전시회에  
외국기업의 러브콜 쇄도**

오는 10월6일부터 3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될 국내 최초의 영화 영상산업 전문전시회인 ‘2022 씨네코리아엑스포’에 외국기업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한국 영화 영상산업의 위상을 실감하게 해주고 있다.

전시회 주관사인 (주)케이엑스비전스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 아세안(ASEAN) 10개국의 지역 거점인 태국은 유린 락사나비싯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약 50여 명의 관계자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국의 대형 제작사인 칸타나 그룹과 TV 방송사인 채널3플러스, 콘텐츠 제작 배급사 등 22개의 기업이 태국 국가관을 구성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태국영화콘텐츠협회연맹 회장단(11명)과 2개 언론사 기자가 전시회 기간 중 국내 영화진흥기관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영화영상산업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태국사절단에는 한국의 영화와 방송 콘텐츠를 태국으로 수입 배급하기 위한 바이어 10개 사도 참여하여 한국 제작사 및 주요 배급사와의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태국 국가관을 운영할 칸타나 그룹은 태국의 인기 있는 신예 영화배우(4명)도 함께 전시회에 참석하여 한국 영화애호가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자국의 콘텐츠 산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며 전시회 개막일 전날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 행사 및 개막식에도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태국 이외에도 북구의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도 국가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영국, 인도, 필리핀 등 14개국에서 70여 명의 외국 바이어들이 전시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전시회가 로컬 전시회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영화영상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